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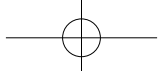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서문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I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성립된 국제정치학은 그 역사가 거의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국제정치학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20세기 후반부터 학계의 주류로 군림해온 정량적 방법론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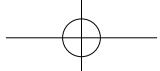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량적 방법론을 더욱 엄밀하게 발전시키려는 입장이 있다. 여기에는 다른 학문에서 발전된 다양한 통계분석, 계량경제학, 공식이론, 게임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정량적 방법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성적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해석학, 구성주의,



탈구조주의, 탈근대주의 등이 바로 이런 입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각 방법론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의 절충·수렴·통일·융합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실용주의, 중범위/중위 이론, 분석적 절충주의가 이런 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 논쟁이 연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시해야 하거나 소극적으로 간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최근 벌어진 ‘국제정치학 이론의 종언’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 입장을 강력하고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 구도에서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특집호는 21세기 방법론 논쟁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특집호의 목적은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전자를 비판하거나 또는 후자를 옹호하려는 데 있지 않다. 반대로 양자에 내재된 철학적·메타이론적 기반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방법론이 실제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의 주요 분야들인 국제안보, 외교정책, 외교사, 국제정치경제에서 각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법론 논쟁 검토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들이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제정치학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방법론이 없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방법론의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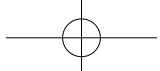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국제정치학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의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 고유한 방법론의 부재는 방법론 논쟁에서 두 가지 편향들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방법론 논쟁이 국제정치학의 연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방법론의 필요성을 무시 또는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방법론적 고려 없이 국제정치학을 체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국제정치학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방법론만으로 국제정치학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방법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방법론 논쟁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먼저 방법론 논쟁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모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방법론의 필요성과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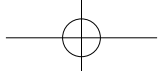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사실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연륜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국제정치학계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확고한 합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자연과학계에서도 방법론은 계속 쫓겨거리로 남아 있다. 통섭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편지』에서 수학을 하지 못해서 생물학 박사과정



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한탄하고 있다. 생물학의 궁극적 목표는 생명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반면 수학은 관찰된 자료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생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강한 수학적 배경이 과학에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엘리트 수학자들이 자주 과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이론의 건축가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의 기초 및 응용 과학자들이 그 지형을 그리고 변경을 정찰하고 오솔길을 개척하며 그 길을 따라 첫 번째 건물을 올린다(Wilson 2013, 27-28).” 따라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수학을 잘 모르거나 잘 못한다고 해서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제왕으로 불리는 경제학에서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떤 교수가 수학적 도구들을 통해 인간 행태를 묘사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많은 학기들이 지난 지금 나는 수학적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로부터 사라졌다”라고 불평한다. 반대로 교수도 교수대로 “학생들은 던져준 어떤 응용수학도 풀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의 추론은 택시운전기사의 지혜와 다르지 않으며 때로는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개탄한다(Carli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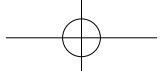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수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을 전공하는 데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일까? 아직도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세워 놓은 현판에 적어 놓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라는 경고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수학을 논리적 사고



체계를 발전시키는 학문으로 폭넓게 이해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을 수를 통해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기술이라고 좁게 정의한다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나는 별들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미적분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의 고백처럼 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대상·현상·사건이 존재하는 한, 수학이 모든 학문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기본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에 대한 강조는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보다 연구를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즉 존재(생물과 경제)보다 방법(수학)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인식은 학문의 대상과 방법을 혼동시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카고 학파의 태두인 게리 베커가 경제학을 인간 행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존 케이가 정확하게 반박했듯이, “경제학은 방법이 아니라 주제이다. 즉 경제학은 사용하는 기법들이 아니라 씨름하려고 하는 문제들에 의해 정의된다(Kay 2014).”

방법이 존재에 우선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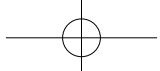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어원적으로 방법이 그리스어 μέθοδος 라틴어 methodus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때 방법론의 역사는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셸던 윌린에 따르면, 그리스 시대에 방법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중세에는 지름길이라는 의미를



획득하였다(Wolin 1969, 1065-1066).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는 방법에 체계적 정리라는 의미가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나와 있다. 영어권에서 방법은 16세기 초반에
 의학에서 특정한 질병의 치유에 적합한 규칙적이며 체계적인 치료
 라는 의미로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반에 이 개념은
 탐구, 전시 또는 작문을 위해 사고와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가르치는 논리학과 수사학의 분과로도 지칭되었다. 17세기 이후
 이 개념은 계획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으로 어의가 크게 확
 대되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2009).

근대적 의미에서 방법론에 과학적 의미를 부여한 첫 번째 학
 자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과 『방법서설』에서 방법에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의 제4규칙에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후 제5규칙에서 “우리가 이
 방법에 정확히 순응하는 것은 복잡하고 모호한 명제들을 단계적으
 로 보다 더 단순한 명제들로 환원한 다음 단순한 것들에 대한 직관
 으로부터 정확히 유사한 단계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으로 올라가려고 도식할 때이다”라고 그 내용을 부연하였다
 (데카르트 1976,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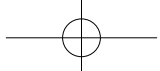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19세기 초 자연과학을 사회분석에 적용하려고 했던 오귀스트
 콩트는 실증방법을 유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
 여를 하였다. 그는 철학하는 방법을 세 가지—신학적(허구적), 형
 이상학적(추상적) 그리고 과학적(실증적)—로 구분하였다. ‘아동
 기에 신학자, 청년기에 형이상학자, 장년기에 물리학자’(Comte



1974[1930-42], 21)라는 그의 비유는 이 삼분법에는 진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비유를 통해 가장 나중에 등장한 관찰, 실험, 비교 방법을 포함하는 실증적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특권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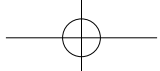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사회물리학을 추구한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본격적 도전은 19세기 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되었다. 실증주의의 복음을 받아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또는 법칙—을 추구하는 오스트리아 이론국민경제학에 대한 독일 역사학과의 비판은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막스 베버는 실증주의의 문제가 방법론에 대한 존재론의 우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프리드리히 텐부룩의 해석에 따르면 베버의 입장은 학문분야가 위기에 빠져들 정도의 논란으로 인해 연구의 본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방법론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방법론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제와 범위는 방법론의 사실적 영역이 아닌, 독자적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다. 방법론적 반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텐부룩 1990[1959], 28).”

성립 초기 독일 사회과학계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 정치학계는 역사학과보다는 실증주의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학계는 설립목적에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고 했으며, 시카고대학의 찰스 메리엄이 그 선두에서 있었다(Gunnell 2006). 1950년대 조사와 통계 방법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한 행태주의와 체계이론이 유행하면서 “방법론이 정치학의 초점에서 정치를 쫓아낸 것처럼 보였다(Barber 2006, 540).”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



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정치철학자들과 비교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학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미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정치에서는 경제학의 수학적 방법을 정치학에 원용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발전시킨 윌리엄 라이커의 영향력이 계속 증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Amadae and Bueno de Mesquita 1999; Shepsle 2003; McLean 2009). 1990년대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비판과 2000년대 초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었만,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Yanow and Schwartz-Sha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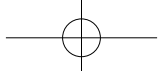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적어도 미국학계에서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취급되는 국제정치학 또한 이런 흐름에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영국의 에드워드 카와 함께 현실주의를 성립하는 데 기여했던 한스 모겐소와 케네스 월츠는 국제정치학을 과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행태주의의 등장 이후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고전적 접근법을 고수하는 영국과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미국 사이에 벌어졌다(Knorr and Rosenau 1969). 이후 미국 국제정치학계는 미국정치와 비교정치에서 적용된 방법들을 국제정치에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헬렌 밀러는 미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의 종합은 “세 분과들에서 학자들이 이제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향”(Milner 1998, 760)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국내정치의 체계적 분석을 반드시 이 분야에 가져와야 한다”(Milner 1998, 759)는 주장에 반영되어 있듯이, 이는 사실상 국제정치의 미국정치 모방-더



나아가서는 종속—을 의미한다. 그 궁극적 결과는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적 기초인 헤들리 불의 국내적 유추(domestic analogy) 또는 케네스 월츠의 제3이미지의 부정 또는 기각이다(Oatley 20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국제정치학의 주요 분과인 국제안보(Brown 2000)와 국제정치경제(Cohen 2008)에서 제기되었으나, 민주평화론과 개방경제정치(Open Economy Politics)로 대표되는 합리주의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III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의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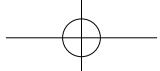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합리주의의 지배적 위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정치학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1980년대 이래로 꾸준히 시도되었다. 전술한 해석학, 구성주의, 탈구조주의, 탈근대주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이 다른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을 통해 합리주의에 도전을 하였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실증주의 과학관에 대한 비판이다. 자연과학에 대별되는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과관계분석(causal analysis)의 유의미성이다. 자연현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과학법이 사회현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과학이 인과관계분석으로 한정되거나 환원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실증주의 과학관에 대한 비판은 사회과학 무용론으로부터 사회현상 탐구



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과학관의 정립까지 그 범위가 넓다.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분석의 유의미성 역시 인과관계분석의 불가능성으로부터 대안적 인과관계분석론 제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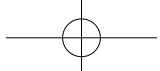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 책의 핵심인 방법론적 다원성의 입장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패트릭 잭슨(Patrick Jackson, 2011)과 밀자 커키(Milja Kurki, 2008)의 입장을 살펴보고 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잭슨은 지식산출(knowledge 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자연과학을 모델로 한 사회과학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취한다. 자연과학에서조차 지식산출의 의미가 무엇이며(진리의 발견? 실용성?), 어떤 과정을 거쳐 지식이 산출되어야 하는가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잭슨은 사회과학이 혹은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에 내재한 일반적 인과법칙이 발견하는 것으로 좁게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Jackson 2011, 16). 사회과학이 좁은 의미의 자연과학화에 대한 대안으로 잭슨은 사회과학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보한 ‘과학관’의 재정립을 역설한다. 잭슨의 대안적 과학관은 ‘사회과학의 목적에 기반 한 최소원칙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최소원칙주의는 방법론적 다원성의 작동에 기반을 제공해준다.

잭슨은 베버(Weber)의 과학론을 적용하여 사회과학의 목적을 “개념과 이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사회현상의 경험적 편린들을 사려 있게 배치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넓게 규정하였다(Jackson 2011, 20-21). 이는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견해’



와는 다르며, ‘개념과 이론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식산출을 목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최소원칙주의는 다양한 방법론적 포지션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반이 된다. 잭슨은 최소원칙주의를 바탕으로 4개의 방법론적 포지션을 유형화하였는데, 이는 신실증주의(neopositivism), 비판적사실주의(critical realism), 분석주의(analyticism), 성찰주의(reflexivity)이다. 잭슨이 시도한 유형화는 상호배타성, 상보성, 경쟁성, 혹은 통합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이 연구자의 분석철학적 포지션, 연구 목적, 연구 주제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분석철학적 토대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법론적 다원화를 통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불합리하게 재단되거나 이단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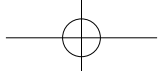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커키는 ‘원인(cause)’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시도하여 사회과학에 적합한 인과관계분석을 도출해낸다.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에서 원인은 데이비드 흄이 주창한 ‘관찰 가능한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칙성(혹은 규칙적 관계)의 발견’으로 개념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여기에 자연과학적인 보편성이 추가되어 일반론적 법칙에서 벗어난 원인, 즉 비규칙적(irregular or random)인 요소는 ‘과학적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개념화는 사회현상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규범, 정체성, 이성(reason), 감정 등 관념적인 요소들을 인과관계분석에서 배제시키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커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4개의 인과유형, 즉 동인(efficient causes), 질료인(material causes), 형상인(formal causes), 목적인(final causes)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있어 원인 개념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커키는 원인 개념의 확대를 원인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더 깊게 하고(deepening) 원인이 되는 요소의 폭을 넓히는(broadening)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도하였다. 전자의 경우(deepening), 원인은 일반적 규칙성의 발견이 아닌 특정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실제적 인과성’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디어, 정체성, 규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broadening), 원인은 합리주의가 강조하는 동인(efficient causes)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의 구조와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료인, 형상인, 목적인까지를 넓게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커키는 원인 개념의 확대 시도는 다원적 인과성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는 잭슨의 방법론적 다원성과 연결되어진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주요 분야들인 국제안보, 외교정책, 외교사, 국제정치경제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다원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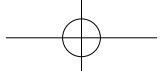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제1장의 “이론, 방법 그리고 방법론(이왕휘)”은 국제정치학계의 최근 방법론 논쟁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인 쟁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방법론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방법론적 다원주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에서 보편적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2장의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 인식론의 모색(전재성)”은 탈실증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출발점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이론의 메타이론적 전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치이론계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본다. 근대 자연과학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인식론의 다양성을 재고하고 철학적 정초를 놓는 시도를 한 후설의 연구를 조망하고 이후 후설의 노력이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가다머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존주의, 해석학, 탈근대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을 검토하며 이들의 연구가 국제정치학 이론의 전회들과 어떻게 관련지어지는지를 고찰한다. 더불어 기존의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실증주의 내재적 비판의 흐름으로 인지과학에 기반한 구현주의(embodimentalism)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인식론과 존재론의 반성에 기초한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의 중요한 성과들을 조망한 후, 이들이 지금의 국제정치학 이론,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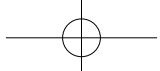
제3장의 “국제안보연구 방법론 고찰(박재적)”은 국제안보가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탈구조주의에도 기반을 두어 연구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을 짚어본다. 이를 위해서 3장은 먼저 전반부에서 미국과 유럽의 학계를 중심으로 탈 냉전기 국제안



보연구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의제도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안보연구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된 이론적 논의를 아시아의 안보현상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례연구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연구에 있어 분석수준 및 분석단위의 심화와 관련 의제의 안보화 경향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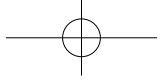
제4장의 “외교정책 설명과 방법론(은용수)”은 외교정책 연구 발전을 위한 메타이론적 접근을 논한다. 특히 외교정책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에 관해 고민한다. 이를 위해 우선 IR에 나타나는 외교정책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논문은 현실/합리주의적 분석과 “방법론적 구조주의” 성향이 역사적으로 매우 강했음을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합리주의적 접근과 구조 중심적 이론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는 외교정책 분석론(FPA)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편중된 인식론에 균형감을 찾는 것이고, 나아가 다양한 분석과 설명이 생산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기존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 그리고 인식론적 다양성의 필요를 제기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한다.

제5장의 “세력 균형에서 협조 체제로(안두환)”는 오늘날 미국 최고의 외교사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폴 슈뢰더(Paul W. Schroeder)의 지난 5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지성사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1994년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유럽 정치의 전환, 1763-1848』은 슈뢰더의 주저로 나폴레옹 전쟁으로 촉발된 근대 국제정



치의 혁명적 변환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함의를 명쾌히 분석,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분야와 관련되어 슈뢰더의 공헌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세력 균형에 따른 유럽 국제정치 해석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오스트리아사 연구자로서 슈뢰더는 자신의 역사 공부에 비추어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두 극단으로서 현실주의 세력 균형론과 이상주의 영구 평화론을 공히 비판한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슈뢰더는 국제정치의 작동 방식이 무자비한 세력 균형이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지배에 따라 충분히 운영되었고, 또 앞으로도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슈뢰더의 지적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슈뢰더의 유럽 외교사 연구와 현대 국제정치학과의 발전적 소통을 고민해본다.

제6장의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이용욱)”는 구성주의의 이론적, 경험적 발전의 맥락 속에서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분석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조망해본다. 특정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방법들을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하여 독자로 하여금 구성주의 분석기법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성주의 내에도 여러 분파들이 상존하여 지면관계상 모든 접근법들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주의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경로를 밝히는 ‘경험주의적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분석기법 등을 논한다. 이와 함께 결론을 맺으며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정치학의 핵심 개념인 권력(power)을 구성주의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핀다. 이는 구성주의 연구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권력(power) 작동분석을 기존의 구성주의 연구가 등



한시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연구 분야로서 제시한다.

이용욱, 이왕휘